

사순절 두번째 주일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2<sup>ND</sup> SUNDAY IN LENT

주후 2022년 3월 13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290 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통일412)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125 번 사순절 (2)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재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마(Matthew) 13:24-30, 36-43	장경국 집사
찬 양 Anthem	“주의 보혈”	찬양대
설 교 Sermon	“추수 때까지 함께 두라” (Let Both Grow Together Until the Harvest)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322 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통일357)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은 “즐거워 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고통을 무관심하게 지나칠 때가 많았고,

우리 자신의 유익과 안락함을 먼저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고,

우리의 신앙은 점점 힘을 잃어가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마음을 찢는 회개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기적이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롬 12:15)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놓으라 하리라” (개역개정 마13:30)

“Let both grow together until the harvest. At that time I will tell the harvesters: First collect the weeds and tie them in bundles to be burned; then gather the wheat and bring it into my barn. (NIV Matthew13:30)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3/13 (주일)	3/14 (월)	3/15 (화)	3/16 (수)	3/17 (목)	3/18 (금)	3/19 (토)
	출24	출25	출26	출27	출28	출29	출30
본문	요3	요4	요5	요6	요7	요8	요9
	오후42	잠1	잠2	잠3	잠4	잠5	잠6
	고후12	고후13	갈1	갈2	갈3	갈4	갈5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3/16 오후7:30)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시매” (사15:1-20)
토요 새벽기도회 (3/19 오전6:30)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시73:1-28)

지난 주일(3/6) 말씀

하나님 나라 살아내기(7) -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눅 11:1-4)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신 (일명) “주기도문”이 실린 본문은 마태복음 6장(마6:9-13)과 누가복음 11장(눅11:1-4) 두 곳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핵심은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즉,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간구에 집중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찾아가는 (막연한) 나라이기 보다는,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는 나라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하여, 다양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1)임하다, 도래하다, 오다 (“에르코마이”)로 표현될 때도 있고(눅11:2),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2)들어가다 (“에이스-에르코마이”)로 표현될 때가 있으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3) 물려받거나, 상속하다(“클레로노메오”)로 표현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에, 1)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2)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며, 또한 3)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상속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격 없는 우리 가운데, (먼저)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이제) 우리는 마음을 열고, 초월로부터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Your Kingdom Come)”의 또 다른 의미는 “그동안 내가 주인 노릇하던 나의 나라는 지나갔습니다(My Kingdom Gone)”라는 의미임을 기억하며, 지금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올곧게 살아내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은혜로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